정부 개헌안 '권력구조 개편' 포함 촉각

대통령 직속 정책위 오늘 기자회견서 준비계획 발표

대통령 결단에 달려…기본권 강화·지방분권 확대 포함

문재인 대통령이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에 국회와 협의할 정부 개헌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하면서 정부의 개헌안 내용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개헌 논의의 핵(核)이라고 할 수 있는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개헌안에 포함될지를 놓고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정부안에 권력구조 개편이 포함된다면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적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이 선호하고 있는데다 여당도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권력구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에 권한이 집중된 현 체제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개헌의 취지라는 점에서 대통령 중임제가 과연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표적 개헌론자인 정세균 국회의장은 그동안 "개헌의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 분권"이라면서 "권력구조를 제외한 개헌은 앙꼬 없는 찐빵, 껍데기 개헌"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권력구조 개편을 둘러싼 쟁점을 놓고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대통령과 정부의 안을 관철하려 한다면 국회에서 이를 논의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마저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적은 개헌안을 발의했다가 만에 하나 한 자리에서 국회 개헌안과 같이 부결된다면 국민투표는 해보지도 못하는 최악의 상황도 가정해야 한다. 이 때문에 쟁점이 있는 권력구조 개편은 제외하고 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 확대 등 비교적 여야 간에도 의견 차이가 작은 내용만 포함해 개헌을 추진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를 반영하듯, 문 대통령도 지난 1일 세종시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적어도 지방분권을 중심으로 한 다음 여야 간 이견이 없는, 합의된 과제를 모아서 개헌한다면 개헌을 놓고 정치적으로 부딪히거나 정쟁화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력구조 개편 내용을 정부의 개헌안에 넣을지는 결국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개헌안 심의 기간 등을 고려해 늦어도 3월 중·하순까지는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한 달 남짓 국민의 의견을 수렴, 최종적으로 결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여론의 확실한 공감대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권력구조 개편이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개헌안 준비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의 극적인 합의가 되지 않는 한 개헌은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정부안은 문 대통령이 개헌 국면을 국민의 지지를 통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승부수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최저임금·암호화폐·부동산 '난타전'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국회의 6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서울 강남권 부동산 가격 상승,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대책, 가상화폐 시장 혼란 등이 쟁점이 됐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8·2 부동산 대책'이 시장 안정의 효과를 내지 못했고,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으로 실업률 상승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맹공을 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소득주도 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엄호했다.

우선 서울 강남갑이 지역구인 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 부동산 정책은 없고 부동산 정치만 있다"며 "강남 부동산을 갖고 정치 편 가르기만 하고 있으니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은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면 (고용주가) 비숙련 노동자를 기계나 숙련 노동자로 대체하고 싶어한다"며 "결국 비숙련 노동자가 해고당하고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는데 정부가 그것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최저임금의 100% 이하를 받는 노동자 가운데 80%는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취약계층 빈곤완화에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 고용 축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고 맞섰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정부가 부실한 대응으로 가상화폐 시장의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 발언 이후 부처마다 대응이 중구난방이었다"며 "정부가 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만큼 국무총리가 내각 총책임자로서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에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국무조정실을 컨트롤타워로 정했다"며 "폐단이 커지지 않도록 최대한 지혜롭게 관리해나가겠다"고 답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권성동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 법사위 파행

민주당 사퇴 촉구…회의 보이콧

한국당 "여당, 민생 내팽개쳐"

퇴장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에서 강원랜드 수사 관련 법사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외압의혹 문제로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시작하자마자 파행됐다.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권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회의를 보이콧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 의원들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방기하고 민생을 내팽개쳤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수사 외압은 허위사실"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의혹 제기만으로 물러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에 앞서 내부 회의를 열어 법사위 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간사인 금태섭 의원은 회의가 시작하자마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강원랜드 수사가 외압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논란의 중심에는 권 위원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리실천 규범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며 "권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해서는 안 된다. 권 위원장은 법사위원장직을 사임해야 한다"고 말한 뒤 퇴장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곧바로 국회 정론관에서 권 위원장 사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회의장에 남은 한국당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을 성토했다. 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전에 민주당 박영선 위원장 같은 편파적인 위원장과도 일해봤지만, 개인적인 일로 위원장에서 나가라고 한 기억이 없다"며 "입만 열면 민생 현안을 처리해달라고 하면서 (회의를 거부한) 민주당의 행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민생을 내팽개쳤다"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신상 발언을 통해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입만 열면 법사위 때문에 국회가 안 돌아간다고 하는데 과연 법사위 때문인가, 우 원내대표 때문인가"라며 "여당이 아직 야당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우 원내대표는 측근을 통해 후보를 매수하고 국회의원에 당선됐는데 얼마 전에 슬그머니 혐의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우 원내대표 먼저 물러나고, 저한테 물러나라고 하면 물러날 용의가 있다. 자신은 원내대표직을 유지하면서 단순히 의혹 제기된 저한테 물러나라고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가 파행되면서 87개의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미래당 당헌에 '자유 민주주의' 포함

대북정책 '제3의 길' 모색…13일 합당 절차 마무리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정당인 '미래당'이 '자유'라는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현재 헌법이 규정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당헌·당규에 그대로 포함할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양당의 통합 절차를 준비 중인 한 핵심 관계자는 이날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의 합당은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중도의 결합"이라면서 "이러한 차원에서 헌법의 '자유'라는 가치가 중요하다는 데 양당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진영논리를 벗어나자는 기본 틀에서 대북정책의 골격도 짜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과거 진보 정권의 햇볕정책으로 촉발된 '퍼주기' 논란과 보수 정권의 제재 위주의 강경책을 넘어 '제3의 길'을 모색하되 "굳건한 한·미 동맹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오는 13일 통합 전대 격인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열어 합당 절차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당헌·당규와 정강·정책도 채택할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오세훈 통합 불참…바른정당 탈당

"한국당 복당 고려 안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국민의당과 통합을 앞둔 바른정당을 탈당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오 전 시장은 전날 바른정당 서울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오 전 시장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당적을 정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선거를 목전에 두고 물리적 통합을 무리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물리적 통합이 정책적인 화학적 융합으로 이어지지는 못할 것"이라며 "지금 당장은 일치하는 면만 강조해 통합 작업을 하겠지만, 수많은 정치 현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비마다 철학적·정치적 입장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당이란 생각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것인데 그런 이유로 (미래당의) 앞날을 길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1월 창당 발기인으로 바른정당에 입당했으나 대통령 선거 이후에는 정치적 행보를 하지 않았다.

오 전 시장은 자유한국당 복당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2018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 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4년 1954~2018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학 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인문	신 학 과	12
	국제한국어교원학과	0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5
사범	유아교육과	1
예능	음 악 학 과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래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2
	실용음악학과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레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8

※신학과는 군종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정시 추가모집
• 원서접수 : 2018. 2. 22(목) ~ 23(금)
• 전 형 일 : 2018. 2. 24(토)

대 학 원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전형일정
① 원서접수 : 2018. 2. 19(월) ~ 22(목)
② 전 형 일
※모집학과 및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대 학 원	과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전 형 일 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2018. 2. 24(토) 오전 10시
일반대학원	박사	신학과(Ph.D.)	○	
		유아교육학과(D.Ed.)	○	
	석박사통합	통합예술치료학과(D.C.S.)	○	
	석사	신학과(Th.M.)	○○	
		유아교육학과(M.Ed.)	○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	
		평생교육학과(M.Ed.)	○○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	
		실용음악학과(M.A.)	○	

신학대학원 편입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모집학년	모집인원	지원자격
2학년	○명 (주·야)	30학점이상 취득자로서 2학기 이상 수료
3학년	○명 (주·야)	60학점이상 취득자로서 4학기 이상 수료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8. 2. 19(월) ~ 22(목)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 전 형 일 : 2018. 2. 24(토) 오전 10시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입학문의 ▶ 학부 062)605-1114 / 대학원 605-1115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